

혁신도시 공공기관 '군산 경제 부흥' 힘 보탠다

시와 공동발전 업무협약
농수특산물 판매 촉진
지역 인재 취업 지원 등
내달 12개 기관 군산 투여



지난 31일 군산시와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지역 공동발전을 목표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군산시 제공>

군산시가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공동발전을 목표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로 확보에 힘쓰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1일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지속할 수 있는 공동발전을 목표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군산시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김두호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원장 등 공공기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전 공공기관은 ▲군산 지역 생산품 및 특산물 판매 촉진 등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군산 지역인재 취업 지원

▲워크숍·연찬회 등 각종 행사 군산 개최 ▲문화·관광과 연계한 상호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군산시는 ▲12개 공공기관 각종 회의 및 행사 장소 제공 지원 ▲지역 특산물 할인 판매 ▲숙박·음식·관광 할인 혜택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최근 고용 및 산업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의 경기 회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할 수 있는 상생 협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산시와 이전 공공기관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상호협력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으며 오는 10월 전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합동으로 군산 투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지역 상권과 군산 관광·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들 기관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와 완주 등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민연금공단,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12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구례자연드림파크 뒤늦은 임금 미지급 형사조치 반발

광주노동청, 입주기업 5곳 통상임금기준 2년 지나 뒤집어

지역 인재 고용, 지역농수산물 매입, 지역 인구 유입 등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구례자연드림파크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하 광주노동청)의 최근 입주기업에 대한 형사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일 구례자연드림파크에 따르면 광주노동청은 지난 2016년 6월 근로감독을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한 임금체계를 2년이 지난 법 위반이라며 형사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급여 계산이 통상

임금 산정 기준에 어긋나 약 2만5000원의 임금이 미지급됐으며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이다.
구례자연드림파크에 입주해 친환경유기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입주회사들은 지난 2015년 8월 노사 당사자간 합의를 기초로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적용해 왔다. 이 기준에 대해 광주노동청은 2016년 6월 근로감독을 실시, 임금체계에 대해 "적법"하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공농수노조 광주전남지부가 구례자연드림파크 5개 입주회사를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임금미지급(통상임금 수당 미산입)'으로 광주노동청에 고발하자 2년 전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구례자연드림파크 측은 광주노동청이 기존 결정을 뒤집은 것은 물론 경미한 사안으로 행정지도가 아닌 기소까지 한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사)구례자연드림파크 입주기업체 협의회 오성수 대표는 "노사 당사자 간 합의로

이미 2015년 8월 임금 체계를 정비했으며 광주노동청이 이미 인정한 통상임금기준을 다시 부정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며 "사법경찰관을 가지고 있는 광주고용청이 제3자의 주장에 의해 기업지도가 아닌 검찰기소를 하는 것은 특정 기업 표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주기업협의회 기업들은 광주노동청의 이러한 표적 행정의 행태를 알리고, 광주전남지역에 신규투자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를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모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문을 연 구례자연드림파크는 현재 17개 회사와 560명의 직원이 입주해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익산시, 농촌개발 사업비 145억 확보

기초생활거점·마을사업 7개 면지역 선정

익산시가 농촌지역개발 공모사업에 100% 선정돼 지역 농촌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익산시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기초생활거점사업 부문에서 3개 면지역과 마을사업에 4개 마을이 응모해 모두 선정됐다.
기초생활거점사업에는 함라면과 옹포면·왕곡면, 마을사업에는 두동면백(성당면)·외두(성당면)·금지(방성면)·관연(여산면)

마을이 선정됐다.
이번 사업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45억 원을 확보했다. 함라면·옹포면·왕곡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각 지구에 각 40억원이 투입돼 문화복지센터 등이 건립된다. 또 소재지 일원의 가로경관 등을 개선해 기초생활거점으로 육성하게 된다.
마을사업에 선정된 두동면백마을 등은 복지회관 등 주민쉼터와 주차장 등이 신설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고창 농식품 명인을 찾습니다

郡, 지역 특산물로 제조·가공...명인 선정시 인센티브

고창군은 '고창군 농식품 명인'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 명인은 고창 농식품의 명품화와 지역의 음식문화 선도를 통한 농특산물의 위상 제고를 위해 선정된다.
군은 농식품 명인 발굴을 위해 지난해 12월 '고창군 농식품 명인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 4월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농식품 명인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농식품 명인은 주소와 영업장 소재지가 고창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지역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해당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다.
군은 사실여부 검토와 현장심사 등을 통해 농식품 명인으로 지정한다.
명인에게에는 인증서와 인증패, 전시회·박람회 참가 우선권,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전통식품 명인 신청 지원, 맛 집 지도 등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한국 3대 해상 파시(波市) '부안군 위도' 재조명 해야"



파시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위도 파장마을.

전북연구원 '바다의 황금시대...' 이슈 브리핑서 주장
세종실록지리지 등 수록...고유 이야기 복원 필요

흑산도·연평도와 함께 우리나라 3대 파시(波市) 중의 하나였던 부안군 위도 파시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은 2일 '바다의 황금시대, 위도 파시의 재현 의미와 추진방향'이라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위도 파시의 재현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관심을 강조했다.
파시(波市)는 해상에서 열리는 생선시장으로 세종실록지리지에 최초로 등장,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기록돼 있다.
조선 전기부터 1970년대 초까지 형성된 위도 파시는 탁지지(度支志)에 언급될 정도로 매우 큰 조기 시장이 형성됐고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 군사적 요충지로서 위도진이 설치된 기록도 있다.
1960년대에는 주민이 5000여명에 달했지만 이후 여장이 쇠락하면서 현재 인구는 1200여명으로 급감했다.
위도 파시의 중심지인 파장금마을은 현재 소수만이 거주하고 건물 대부분도 역사의 흔적만 간직한 채

방치됐다.
전북연구원은 이같은 쇠락은 서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파시임에도 역사적 가치의 복원·재현, 어업문화의 재조명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파시로 형성된 위도 섬 문화의 고유한 이야기와 문화가 면면히 이어져 오는 만큼 이를 복원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위도는 변산반도에서 서쪽으로 15km 떨어져 있는 섬으로 5개의 유인도와 10여개의 무인도로 구성된 전북도에서 가장 큰 섬이다.
애초 전남 영광군에 속해 있다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1963년 부안군에 편입됐다.
이동기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위도를 중심으로 한 '서해 파시 해양문화권'을 설정해 서해안 해양관광 루트를 조성하고 남북한 수산협력을 위한 '서해 남북 해상 파시' 추진도 고려할 때"라고 말했다.
/부안=박기성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나주, 임야 급매합니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전원주택지 등)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시세 - 14억5000만원
- 급매 - 10억
- 문의. 010-6834-74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영암 금정면 대항저수지부근 땅 1816㎡ 컨테이너, 절·사찰적합 9천만원
-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땅 794㎡ 주택 100㎡ 요양시설적합 3600만원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900만원
- 전북 순창군 북흥면 지선리 대지 433㎡ 3천만원
- 보성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입구 1868㎡ 첫집등적합 1억3천

주택·원룸·아파트

- 광산구 송산동 땅 1054㎡ 집 100㎡ 전원생활적합 3억2천
- 아파트 서구 농성동 제일파크 14층 105㎡ 리모델링완료 1억7200

투자·매도·교환

- 장성 삼계면 주산리 상업지 601㎡ 은행1억 투자에양호 3천만원
- 신안군 중도면 방축리 옐도라도부근 602㎡ 매도 1억6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7억7천
- 유동 소방도 상업지 331㎡ 상가·원룸적합 4억7천
- 월산동 양면도로점 2층 주거지 873㎡ 은행4억 매도 11억5천
- 금남로 57억 대로점 상업지 364㎡ 16억
- 쌍촌동 소방도 땅 118㎡ 2층 상가주택적합 1억3천
- 영광 흥농읍 주거지역 5223㎡ 공시가 6700 매도 8700
- 함평역 건너 대로점 2층주거지 3192㎡ 다양한용도 2억6천

상가건물

- 순천만 대대동 팬션 땅 332㎡ 객실8, 관리실, 은행3억 영업적합 3억1500
- 장성 삼계면 사창리 땅 192㎡ 건물 164㎡ 식당적합 1억8천
- 목포시 북항 푸드타운 1층 91㎡ 은행 9천 매도·교환 3억4천
- 신안군 신의면 전망좋은 바닷가 인접 땅 4428㎡ 가든과 민박 5실 건물 301㎡ 은행 1억 팬션·연수원 적합 교환가능 3억4천
- 동구 수기동 소방도 코너 4층건물 땅380㎡ 건물990㎡ 은행6억 매도 12억8천
- 산수오거리 부근 땅 494㎡ 건평 1996㎡ 병의원적합 20억
- 양림동 땅 274㎡ 건물 751㎡ 요양병원할 건물과 교환가 16억
- 충장로5가 땅 109㎡ 건물 378㎡ 8000에 월 115 임대중 3억5천
- 나주시 땅 4045㎡ 건평 5893㎡ 증축해서 요양병원적합 65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펜션·가든 부지 매매

-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 장성 편백속 5분거리
- ▶ 문수사 단풍속 2분거리

010-3768-0615 주인 직매
010-3799-3830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 남부대학교 삼매관 ☎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